

한자음(漢字音)

金武林

강릉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한자와 한자음

한글은 표음 문자인 반면에 한자(漢字)는 표의 문자이다. 표음 문자는 본질적으로 문자 자체가 음표 역할을 하지만, 표의 문자는 의미에 문자의 형태가 연결되므로 표음은 별개의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의 음성 형태가 통시적인 변화를 겪으면 ‘ㄱ술’ 가을’처럼 표음 문자에 의한 어휘 표기는 자연히 달라지게 되지만, 한자는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형태 변화는 음운 변화에 수반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자 ‘國’은 7세기 전후인 중국의 수당 시대(隋唐時代)에서 현대에 이르는 동안에 그 음이 ‘kuək> kui> kuo’로 변화하였지만 문자의 형태가 이에 따라 바뀌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현대 이전의 한자음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언어학적인 재구 방법에 의존하게 된다.

한자는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에 인접한 동양의 여러 나라에서 문자로 차용되어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 시대 이전부터 한자를 사용하여 문자 생활을 하였고, 한어(漢語)의 어휘를 대량으로 차용하여 국어 어휘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한자라 하더라도 중국 내의 각 방언마다 그 음이 조금씩 다르고, 한국, 일본, 월남 등의 한자음도 각각 다르다. 원래는 하나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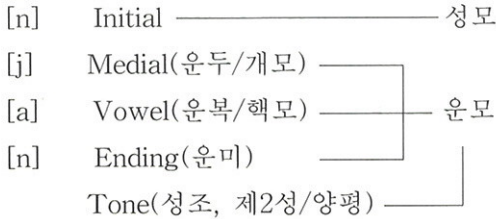
한자음이 지역과 시간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것은 한자음 자체의 통시적 변화와 함께 언어가 다른 지역의 음운 체계에 차용되면서 체계적 변모를 입기도 했기 때문이다.

현대 국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자음도 그 기반은 한어(漢語) 한자음에 있는 것이지만 고대 국어의 어느 시기에 국어 음운 체계에 의하여 고정되고, 이후에 국어 한자음으로서 자체적인 변화를 겪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국어 한자음을 연구하는 것은 내적으로 국어 음운사를 연구하는 데에 하나의 중요한 관건이 되며, 외적으로는 한어 어음사(漢語語音史) 구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국어의 문자 생활은 한자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또는 차자 표기(借字表記)에 의한 것이 전부였으므로, 고대 국어의 음운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국어 한자음에 대한 고찰이 필수적이다.

2. 한자음 연구 방법

한어학(漢語學)에서 언어학적으로 한자음을 연구하는 부문을 특히 성운학(聲韻學)이라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음절 단위인 한자음을 성(聲)과 운(韻)으로 이분하는 언중의 직관을 반영한 것이다. 중국에 있어서 한자음은 음성 언어라는 기본적 역할 외에 압운(押韻)이라는 문학적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 운문(韻文)이라는 문학적 분류도 역시 압운 의식의 작용에 의해 성립된 장르이며, 다양한 운서(韻書)나 운도(韻圖)의 편찬도 이러한 소용에 부응하기 위한 것임은 물론이다. 하나의 한자음은 IMVE/T의 요소에 의해 다음과 같은 계층적 구조로 분석된다.

(1) 年 [njan]의 음절 구조



하나의 한자음에 대한 (1)과 같은 분석 구조는 한자음에 대한 연구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개념의 기본 요인이 된다. 운서는 운모의 음운적 변별을 기준으로 운류(韻類)의 대표자인 운목(韻目)을 설정하고, 그 아래에 다시 성모와 운모를 기준으로 한자를 분류해 놓은 책이다. 그러므로 『옥편(玉篇)』과 같은 사전(字典)이 형(形)을 기준으로 한자를 분류한 것이라면 『절운(切韻)』이나 『광운(廣韻)』, 그리고 한국의 『동국정운(東國正韻)』과 같은 책은 음(音)을 기준으로 한자를 분류한 것이다. 음에 의한 한자의 분류에 있어서는 운모가 일차적이고 성모는 이차적이다.

성모(聲母)에 의한 한자의 분류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의한 다음과 같은 오음(五音)과 청탁(淸濁)이 그 기준이다.

(2) 오음과 청탁에 의한 성모 분류

가. 오음

- 아음(牙音)-연구개음
- 설음(舌音)-설두음-치경 파열음 및 비음
 - 설상음-경구개 파열음 및 비음
 - 반설음-설측음

순음(唇音)-중순음-양순 파열음 및 비음
 경순음-순치 마찰음 및 비음
 치음(齒音)-치두음-치경 마찰음 및 파찰음
 정치음-경구개 마찰음 및 파찰음
 반치음-비음 및 유성음 성격의 치경 마찰음
 후음(喉音)-인두음 및 후두음

나. 청탁

전청(全淸)-무성무기음
 차청(次淸)-유기음
 전탁(全濁)-유성음
 불청불탁(不淸不濁)-공명음

운모에 의한 한자의 분류는 운서(韻書)의 체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어의 중고음을 반영하고 있는 『광운(廣韻)』은 206운으로 분운(分韻)되어 있으며, 성조에 의한 변별을 제외하면 61운이다. 그리고 이러한 운을 다시 핵모와 운미를 기준으로 대단위로 분류한 것이 섭(攝)이다. 『광운』의 61운을 16섭으로 간추려 보이면 다음과 같다. 운목은 평성자로 보이되, 해섭(蟹攝)의 '祭, 泰, 夬, 廢'는 거성으로만 구성된 운이므로 거성 운목자이다.

(3) 『광운』의 61운

通攝-東, 冬, 鍾
 江攝-江
 止攝-支, 脂, 之, 微
 遇攝-魚, 虞, 模

蟹攝-齊, 祭, 泰, 佳, 皆, 夬, 灰, 咍, 廢
 臻攝-眞, 諄, 臻, 文, 欣, 魂, 痕
 山攝-元, 寒, 桓, 刪, 山, 先, 仙
 效攝-蕭, 宵, 肴, 豪
 果攝-歌, 戈
 假攝-麻
 宕攝-陽, 唐
 梗攝-庚, 耕, 清, 青
 曾攝-蒸, 登
 流攝-尤, 侯, 幽
 深攝-侵
 咸攝-覃, 談, 鹽, 添, 咸, 銜, 嚴, 凡

위에 보인 운목은 다시 소운으로 나뉘어진다. 소운에 소속된 한자는 성운(聲韻)에 있어서 완전히 음이 같으므로, 성모와 개모에 의하여 최종적인 분류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운서는 같은 음의 한자를 한곳에서 모두 열거하여 보여준다는 점이 특징이지만, 성운의 구체적인 실상을 알 수 없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이른바 당대(唐代) 이후에 체계화된 운도(韻圖)이다.

운도는 소운을 성모와 운모의 차이로 세분하여 도표화한 것인데, 대표적 운도인 『운경(韻鏡)』을 예로 들면 개합(開合, 開口와 合口)에 따른 하나의 도표에 23단위에 의한 성모의 분류가 횡렬에 놓이고, 종렬에는 운목에 따른 분류가 평, 상, 거, 입의 4단으로 크게 나뉘며, 다시 각 성조의 운목은 4단으로 세분되어 위로부터 1등, 2등, 3등, 4등이 된다. 4등의 분류는 개모와 핵모의 섬세한 차이를 체계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므로, 운서와 운도를 함께 참조하여 한자음을 고찰하면 한자음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한자음의 변화는 한자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운류(韻類), 성류(聲類),

조류(調類)에 따른 체계적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운서와 운도에 의한 한자음의 분류는 한자음 변화의 추적에 필수적 가치를 지닌다.

한자음에 대한 연구의 초점은 주로 고음(古音)에 대한 것에 놓인다. 이것은 표의 문자인 한자의 변화는 그 음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심도 있는 연구에 의한 재구(再構)의 대상이 되는 까닭이다. 한자음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상고음(서기 6세기 이전), 중고음(6~7세기 무렵), 근고음(8~13세기 무렵), 근대음(14~19세기 무렵), 현대음(20세기 이후) 등의 시대 분류에 의해 추적되며, 문헌에 의한 실증적 연구는 중고음이 전망과 회고의 기준이 된다.

3. 국어 한자음 연구의 가치

훈민정음의 창제(1443년) 이전에 국어의 표기는 모두 한자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한자 표기 및 한자음에 대한 연구는 중세 국어 이전의 고대 국어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유일한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어 한자음의 실상은 역시 『훈몽자회』 등에 기록된 바와 같이 훈민정음 창제에 의하여 주음(注音)되기 시작한 이후에 그 음의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에 표기되었거나, 또는 구결 및 이두 표기에 사용된 한자음의 정체는 조선 시대에 사용된 한자음과 여러모로 같지 않았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예로 지적할 수 있을 뿐 그 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4) 〈한자〉 〈구결/이두 독음〉 〈조선음〉

彌	며	미
賜	시	스
叱	스	즐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조선 시대의 전통적인 한자음은 상당 부분에 있어서 중원(中原)에서 쓰인 한어 중고음과의 맥락이 깊다. 한어 중고음은 6~7세기 무렵의 시대를 기반으로 하므로 조선 한자음의 성립을 논의하는 데에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중요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조선 한자음에는 상고음적 특성과 근대음적 추세가 가미되어 있으므로, 조선 한자음의 성립에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한어와의 부단한 교섭이 있었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조선 한자음은 비록 조선이라는 시대에 이르러 표면에 등장한 것이지만, 그 성립은 역시 고대 국어의 어느 시점과 고대 한어와의 어떤 접점이 초점이므로, 조선 한자음의 기층을 음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내적으로 고대 국어의 음운 체계를 밝히는 문제와 직결되며, 외적으로는 한어 음운사의 재구에도 유효한 방법이 된다.

조선 한자음을 실증적 기준으로 하여 고대의 여러 문헌에 사용된 한자, 그리고 이두 및 구결에 사용된 한자음을 회고하여 재구할 수 있다면, 고대 국어 음운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자음의 변화는 유별(類別)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삼국 및 통일 신라 시대, 그리고 고려와 조선에 이르는 한자음의 실체를 추적할 수 있다면 국어 음운사의 변화 단계를 세분하여 서술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는 셈이다.

요컨대, 국어 한자음에 대한 연구는 조선 한자음에 대한 것과 고대 국어의 문헌에 차음(借音)되어 표기된 한자음에 대한 것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들 두 계열의 한자음은 그 차용 기반이 달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한어 음운사의 연구 성과와 함께 국어 음운사의 내적 변화를 접목하여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고대 국어로 소급하는 국어 음운사의 심화는 국어 한자음의 연구 성과에 달려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